



당회장 이재록 목사

참된 일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명예, 부모, 자녀, 내 재산, 내 시간, 내 취미 이런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밤낮 영혼들의 형편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지요. 직분을 받은 사람도 성도의 머리이니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섬겨야 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이 나옵니다.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굶주리며, 춥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사연들을 구구절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힘들다 하거나 내 고생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8~29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무수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날마다 놀리는 것은 교회들에 대한 염려였지요.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고통스럽고,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이 애달랐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말씀한 대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랑은 다른 어떤 부귀영화나 명예, 권세가 아니라 주 안에서 맺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궁핍과 환난을 당하던 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그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성도들로 인해 위로를 크게 받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되었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사심이 없으면 당연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합니다. 주님의 일꾼이라면서 자기 유익을 구해 어떤 일을 이루었다면,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오히려 낮이 뜨겁고 기도할 때도 민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의 유익이 아닌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 해서 내 주장을 꺾지 않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 받지 못할 사람에게 내 믿음에 맞춰 강요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내가 머리다.’ 하여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섬겨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불편함을 갖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속한 곳에서 화평이 깨진다면 무조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초신자라서, 육의 사람이라서,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해서, 진리에서 멀어서 화평이 깨진다고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머리이니 아랫사람이라면 당연히 섬겨야지. 어떻게 감히 내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한다면 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머리고 일꾼이니 오히려 먼저 상대를 섬기고 본이 되어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뤄야 하지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으로 인해 땅이 좁고, 이로 인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자 즉시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가축을 분리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찾은 후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르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 했지요. 롯이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못한다고 책망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르라고 한다고 정말로 좋은 땅을 먼저 골라?’ 하고 껄떡해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진심으로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좇아 주었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기에 축복이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며, 더 많은 영혼이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되려면 첫째,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둘째,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심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충만합니다. 중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 모든 분야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 사랑장과 성령의 열매, 팔복 같은 마음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 신속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사명 감당에 있어서도 분야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과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되지요. 바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요삼 1:2).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큰 영광 중에 거하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 기도의 향은 얼마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직분자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와 기쁨, 기도의 향이 굵고 진한 중심의 향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린다면 그만큼 귀히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참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사심’은 ‘자기 욕심을 구하며 육적인 정을 좇으려 하는 마음’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은 물론,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내 의견과 취향을 고집하는 것도 사심이요. 내가 대접받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내 공적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사심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은 일꾼은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맡겨진 양떼를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믿음 성장의 비결

주님을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 믿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이후 청년, 아비의 믿음(요일 2:12~14)으로 하나하나 그 단계를 거쳐 성장하게 되는데, 각자의 행함에 따라 개인차가 생기게 된다. 세 가지 분야로 믿음 성장의 비결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신속히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행해야 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조급한 마음으로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한다면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려면 먼저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급하게 여기면 육신의 생각이 앞서므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할 뿐 자신의 모습이 잘 깨우쳐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족한 모습이 발견된다 해도 버릴 힘이 오지 않으니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놀리고 고통만 받을 뿐이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은 '이만큼 되어야 한다.'는 선을 정하거나 안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한다(롬 12:3).

잡념과 졸음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도 감동함 속에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을 실어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등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이러한 일들이 쌓여 큰 믿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버리지 못했던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된다(눅 11:11~13).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명심했는지, 말씀을 행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점검해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온전히 행하고자 노력하면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겸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을 공급 받으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랑 안에서만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행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진리와 비진리 등을 분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변화되어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거나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 설령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깨닫는다 해도 버릴 힘이 주어지지 않으니 그 말씀이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으로 깨우쳐지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에 무조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회개한다고 하거나,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게 해 주세요." 하며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나를 지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죄악도 속히 버리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 사랑 속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가까이에 거할 수 있게 하소서." 이처럼 기쁨과 감동의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온전한 믿음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망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모든 사람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자신이 좀 더 앞서 있다 싶으면 안도감이 들지만, 상대가 더 나은 것 같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은 범사에 선으로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자신이 칭찬받은 것처럼 행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고, 마침내 반드시 온전한 믿음에 이를 것을 믿는다.

상대가 앞섰다고 해도 감사하고, 내가 앞섰다면 상대를 위해 기도해 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것이다. 그러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범사에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변화의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는 점이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아무리 부족한 중심과 척박한 마음 밭도 변화될 수 있다. 과연 나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여 새 예루살렘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직시함으로, 나를 부르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온전케 하시며(살전 5:24),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소망으로 불같은 기도의 향을 올리며 말씀대로 행해 온전한 열매로 나오기를 바란다.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육체의 결여 4-8
- 축복
- 죄의 뿌리와 성결 1
- 선 6-10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
- 요한일서 강해 2-8
- 요한계시록 강해 85-93

GCN TV 설교

-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2(이수진 목사)
- 하나님의 영(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76(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30(신동초 목사)
- 이드로의 방문(정구영 목사)
-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임학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권능 스페셜 2
- 모두 드려요 46
- 옛날 옛적에(시즌2) 7
- 내 마음의 찬양 26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8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21
- 마지막 때 2
- 창조와 과학 12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5
- 러시아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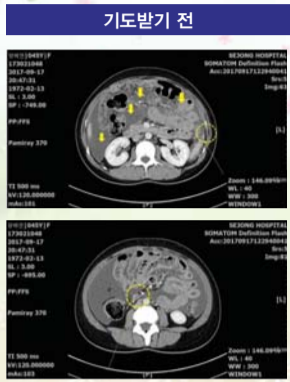
주요 프로그램 안내

11월12일~ 11월18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양혜연 권사 (47세, 3대대 31교구)



난소암 전이로 생각되는 종괴가 보이고(동그라미) 복강내 여러 군데 복수가 고여 있음(화살표).

후복막에 다수의 림프절 전이가 보임(동그라미).



결핵성 복막염으로 판명(붉은 점선).

2017년 9월 11일(월)부터 심한 열감기와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흘째 되던 15일(금) 밤,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9개월 처럼 복수가 차올라 17일(주일) 저녁,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피검사와 엑스레이, CT 촬영을 마친 결과, “CT상으로는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18일(월) 오전, 산부인과로 가니 의사는 “난소암인데 크기가 크고 모양이 너무 불규칙해서 악성이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 그 분야에서 유능하다는 특진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먼저 빼고 난 뒤, 교수님은 이전 병원에서 가져온 진료기록과

CT를 확인하고는 “난소암일 가능성이 거의 90%이지만 워낙 전이가 빠른 곳이니 PET-CT를 찍어서 어디까지 전이됐는지 검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일(수), 다시 병원을 방문해 PET-CT를 촬영하니 “난소암 말기 99%이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수술을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걸리는 대수술이 될 것이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제야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22일(금), 산상 기도 중에 계신 당회장님께 회개편지와 함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서신으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사이 이수진 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으니 복수는 더 이상 차지 않았지요.

“죽음의 위기에서 아들을 보호하시고 세계 승진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라시디 알파니 카엠베 집사 (59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2010년 11월, 무슬림이었던 저는 동생의 전도로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집사가의 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전도하여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민을 만나 목자의 공간 안에 보호받으며 축복도 받아가고 있지요.

2년 전, 군대에 지원한 큰 아들은 훈련을 마치고 콩고 부니아 도시 지역 반군 점진 지역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반군과 교전하던 중 상관은 총에 맞고, 부대원들은 폭탄에 맞아 모두 사망했지만 아들만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무사했지요. 할렐루야!

저희 부부가 아들을 위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목사님의 기도를 받았기에 아들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 뒤 아들은 대통령 소속 부대로 들어가 근무하게 되었는데, 올해 4월 초에는 카사이 폭동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곳 역시 이전에 파견된 경찰들이 몰살당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당회장님께 요청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기도를 받음으로 이때도 아들은 무사히 킨샤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니 저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경찰기획부에서 근무하면서 상관들의 방해로 수년간 국가에서 나오는 위험수당과 그 외의 수당들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직 선으로 행하고자 더욱더 주변을 섬기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인내하였습니다.

24일(주일) 저녁, 당회장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니 안심이 되고 ‘하나님 역사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날인 25일(월)에는 6일 전 예약했던 국립암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전 병원에서 가져온 CT 사진을 보고 내진 하시더니 “암이 대장에서 시작해 난소로 갔을 가능성도 있기에 조직검사까지 다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암이 많이 퍼져있고 모양도 좋지 않아 항암을 바로 시작해야 할 수 있지만 일단 검사를 더 자세히 해보자.”고 하셔서 저는 그날로 입원하였지요. 피검사, 엑스레이, 복부CT, 유방·복부 조직 검사 등 며칠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28일(목) 오전, 1차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만성염증’ 소견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 묻자 교수님은 “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며, “결핵균이 장으로 침투해서 장에서 염증을 일으킨 것 같으니 호흡기내과와 연결해서 염증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바뀌어서 그날 오후, 호흡기내과에서는 “암은 아니라고 하시죠? 호흡기 쪽으로 검사할게요.”라고 했고, 유방 쪽 검사 담당 선생님은 제 진료 기록을 쪽 훑어보시고는 “암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인 29일(금),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퇴원하였습니다. 그 뒤 10월 23일 2차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님을 확진받았지요. 할렐루야!

영육 간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던 지난 8월,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시 당회장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로 저는 뜻하지 않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기획부 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동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